



John 18

요한복음 18
Tape #8086
By Chuck Smith

Chapter eighteen, the gospel of John. 이제 요한복음 18장이다.

When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went forth with his disciples over the brook Cedron, where there was a garden, into the which he entered, and his disciples (18:1).

This means that this prayer in the seventeenth chapter of John was spoken before they got to the garden of Gethsemane. Somewhere between where they had the last supper, the end of chapter fourteen, they left the house where they had had the supper. So up to chapter fourteen, you have the conversation of Jesus there in the room where they had the passover feast. And then chapter fifteen and sixteen, we're on the way to the garden of Gethsemane, as also was the prayer of Christ. Evidently, they stopped somewhere along the way and Jesus uttered this fabulous prayer that we studied last Sunday night, the seventeenth chapter. At the end of chapter fourteen, it says, Arise, let's go; and so they left the upper room where they had the passover supper and the conversations on the way, the prayer of Jesus. And now they are getting to the mount of Olives. You have to cross the brook of Cedron to get over to the mount of Olives and there was a garden there called Gethsemane. The word means an olive press. 이 구절의 의미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겔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 요한복음 14장이 끝나기 이전 어느 때가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을 잡수시던 집을 나오셨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14장 이전의 것은 유월절 축제를 지내셨던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담화(談話)의 내용이다. 15장과 16장은 겔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주신 주님의 교훈이며, 그리스도의 기도도 그 노중에서 드리신 것이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노중(路中)에서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신 게 분명하다. 지난 주일 밤에 우리는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살펴본 바 있다. 14장 끝에 보면,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하는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다락방을 나오신 게 분명하며, 그분은 담화도 기도도 모두 노중에서 하신 게 틀림없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도달하셨다. 감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하였다. 건너편에는 겔세마네라 불리는 동산이 있었다. 겔세마네란 말은 감람유 짜는 기계를 의미했다.

Evidently, some wealthy person had given Jesus the key to the garden. The mount of Olives was covered with private gardens. The wealthy people of Jerusalem had gardens on the mount of Olives. They could not really have gardens within Jerusalem. They had some kind of rule that you couldn't use fertilizer within the city. And so they had their gardens over on the mount of Olives and they were private gardens. Gated gardens. No doubt someone had given to Jesus the key to the garden. He used it often as a place that He would go and spend the night with His disciples and it was a place that was familiar to them. So He crossed the brook “where was the garden, in which He entered and His disciples.” 분명히,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열쇠를 갖다 드렸을 것이다. 감람산에는 온통 개인 소유의 정원들이 널려 있었다. 예루살렘의 부호들이 그 동산에다 정원을 마련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시내에서는 정원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는데, 도성 안에서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너편 감람산에다 정원을 마련해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정원들은 모두 개인 소유였으며 문들이 달려 있었다. 따라서 누군가가 예수님께 정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분은 종종 그 열쇠를 사용하여 정원으로 들어가 제자들과 함께 밤을 지새며 기도를 드리셨으며, 제자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분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후, “거기 동산이 있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And Judas also, which betrayed him, knew the place: for Jesus oftentimes resorted thither with his disciples (18:2).

It was a place that was well known to all of the disciples. It was a place that they went quite often. 제자들도 모두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 모두들 그곳으로 매우 자주 가곤 했기 때문이다.

Judas then, having received a band of men (18:3).

The word “band” here in the Greek is *speira*, and it is an interesting word because it refers to a unit of Roman soldiers. It could refer to as few as 600. Also it could refer to a unit of 1,200 with 200 cavalry men. And it also referred to a unit up to 1,600. So taking the smaller number, there was quite a number of soldiers that came with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and all to the garden to arrest Jesus. “Having received the band,” *speira*. So they came with the, 여기서 사용된 “군대”라는 말은 희랍어로 ‘스페리아’인데, 이것은 ‘일단(一團)의 로마 군사들’을 가리키는 흥미로운 단어이다. 이 말은 600명 정도의 군사를 가리킬 수도 있었다. 또한 이것은 200명의 기병을 포함하여 1,200명의 군사들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킬 수도 있었다. 나아가서, 이 단어는 1,600명의 군사로 구성된 부대를 가리키기도 했다. 그러므로 작은 부대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의 군인이 대제사장 가신(家臣)들과 함께 왔을 것이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동산에 왔던 것이다. 그들은 “군대를 데리고” 왔으며 또 다음에 언급되는 사람들도 데리고 왔다.

officers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came with their lanterns and torches and weapons (18:3).

They probably figured that Jesus was going to try to hide somewhere and so they had lanterns and torches. There was a full moon because this was passover. And passover took place on the third full moon after our new year. After the Jewish calendar, April was their first month of the year and so the passover always took place on the full moon of the first month. This was passover and they had the full moon so it was quite bright. So they figured no doubt that Jesus would be lurking somewhere, in a cave or hiding. So they had lanterns and torches with them as well as their weapons. 그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그 동산 어딘가에서 숨어버릴 것이라고 추측했던 모양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횃불을 들고 왔던 것이다. 당시는 유월절 시기였으므로 보름달이 밝았을 것이다.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으로 치면 세 번째 만월이 있는 날에 해당하였다. 유대력으로 보면, 4월은 한 해의 첫 번째 달이었기 때문에 유월절은 언제나 첫 번째 달의 만월 시에 다가오게 되어 있었다. 이 때는 유월절 즉 만월이 뜨는 날이었고 따라서 밤에도 매우 밝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동굴이나 음침한 곳에 피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등과 화 뿐 아니라 병기도 가지고 왔던 것이다.

Jesus therefore, knowing all things that should come upon him, He went forth, and said unto them, Whom seek ye (18:4)?

He didn't try and hide someplace but He went right forth, met them. And just asked them,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seeking?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숨기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진해서 앞으로 나아가 그들은 맞으셨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They answered him, Jesus the Nazarene. Jesus said unto them, Ego Eimi, I am (18:5).

The word “he” is in italics note, which means that it was added by the translators. Jesus just said, I am. He used that name of the eternal God, Yahweh. The “I am that I am.” And when He spoke that name, I am, there was such force, such power that, 영어 성경에서는 “그”를 찾으러 왔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때 ‘그’라는 단어는 이탤릭 체로 되어 있다. 그 의미는 번역자가 첨기(添記)하였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니라”고 답하셨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사용하신 것에 해당한다. “내가 ...이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명칭을 들어 응답하시자 엄청난 힘이 작동하였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As soon as He had said unto them, I am, they went backwards, and fell to the ground (18:6).

Here is a manifestation of just that when He would utter the words, I am, so dynamic, so powerful that they fell over backwards.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현시(顯示) 되고 있다. 그분이 “내가 ...이니라”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강력했던지 군사들이 뒤로 나가 동그라졌다.

And so He asked them again, Whom seek ye? And again they said, Jesus the Nazarene. He answered, I have told you that I am: and if therefore you seek me, let these go their way (18:7,8):

Notice how that Jesus is more or less taking charge. He's ordering them. They've come to arrest Him and all but yet they recognize that He has authority. So He's ordering them, If you're seeking Me, then let these fellows go. Let them go their way. Again, the protection of Jesus for His disciples. Looking out after them. You can arrest Me, that's part of the plan. But also a part of the plan is that they be set free. So "I told you that I am: therefore if you seek Me, let these go their way." 여기서 예수께서 스스로 책임을 떠맡으려 하셨다는 점에 유의하라. 그분은 저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다. 예수님을 잡으려 온 자들은 그분이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만일 나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도록 하라. 그들로 자기 길을 가게 하라. 다시 한 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려 하셨다. 그들을 돌봐주려 하셨다. '너희가 나는 체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계획된 일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획된 일의 또 다른 부분은 나의 제자들을 놓아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That the saying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ake, Of them which thou gavest me have I lost none (18:9). The prophecy was, "Smite the shepherd, and the sheep will be scattered" (Zechariah 13:7). And Jesus said, All of you are going to be offended this night because of Me. It was the scattering of the disciples. They fled. 예언은 이와 같이 되어 있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슌 13:7).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었다. 그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But Simon Peter having a sword drew it (18:10),

They had, remember, speira of soldiers, quite a few, At the least 200. That's a smaller unit. Then speira, but the smallest unit would be 200. Peter's ready to take them on. You may fault Peter for his denying the Lord under the pressure but hey, Peter's ready to take on the whole band. I mean, he's going to swing. I'll go down swinging. 저들에게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군사들이 상당히 많았다. 최소한 200명은 되었을 것이다. 적게 잡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당시의 '스페리아'는 작은 단위 부대의 군사가 200명쯤 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그들을 대적하려 하였다. 여러분은 궁지에 몰리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을 두고 베드로를 비난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여기서는 베드로가 그 모든 군사를 대적하려 나섰다는 점을 기억하라. 내 말은 그가 고군분투 하려 했다는 얘기다: '내가 내려가 저들과 좌충우돌하리라.'

I like Peter. I really like him. He's my kind of a guy. If we're going to go down, let's go down swinging. At least let's put up an effort. And so he drew his sword, 나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나는 정말로 그를 좋아한다. 그는 내 맘에 쏙 드는 사나이다. '만일 우리가 기어이 내려가야 한다면, 저들과 좌충우돌하면서 내려가도록 합시다. 최소한 우리가 노력은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칼을 빼 들었던 것이다.

and he smote the high priest's servant, and cut off his right ear. The servant's name was Malchus. Then said Jesus unto Peter, Put up thy sword into the sheath: the cup which my Father hath given me, shall I not drink it (18:10,11)?

John doesn't record for us the prayer of Jesus in the garden. He no doubt felt that it was not necessary because the other gospels had already been written and were widely circulated. And the other gospels all record for us the prayer of Jesus in the garden which He repeated three times when Jesus said, "Father, if it is possible, let this cup pass from M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Matthew 26:39). The cup referring to the cross. 감람산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우리를 위한 배려였다. 그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까지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은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는 다른 모든 복음서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여기서 '잔'이라고 표현된 것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If man can be saved by good works, then let's set out the criteria of works that they must do. If man can be saved by being religious, let's set out the form of religion. If man can be saved by any other means, let this cup pass from Me. If it's possible. Nevertheless,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So now having resolved the issue, He says, "the cup that the Father has given Me to drink, shall I not drink it?" Referring to the cross and His going to the cross. He is committed now to the will of the Father. 만일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그 기준을 정보하도록 하자. 만일 사람이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종교의 형태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자. '만일 사람이 다른 어떤 수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문제의 실마리를 푸신 듯,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가리킨 말씀이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던 것이다.

As we are told in Philippians, He "emptied Himself, became as a servant, obedient unto death, even the death of the cross" (Philippians 2:7,8). Submitting Himself to the will of the Father. "I did not come," He said, "to do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John 6:38), and "to finish His work" (John 4:34). So "the cup which the Father has given me to drink, shall I not drink it?" 빌립보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빌 2:7,8).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위임하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 6:38,39). 그러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Then the band [that is that speira again 다시 '스페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and the captain and officers of the Jews took Jesus, and bound him (18:12),

I think of this, how foolish it was for them to bind Him. It was totally unnecessary and those handcuffs or whatever they put on Him, however they bound Him with the ropes or whatever, that's not what held Him. He could have easily had dispensed of whatever it was that they used to bind Him. As He said, Don't you realize I could call twelve legions of angels to deliver Me? In fact, I have sort of a suspicion that God had to use tremendous restraint on the angels at that point. I'm sure that they wanted to just enter the scene and just really wipe them out. The demeaning, horrible humiliation that their Lord was being subjected to by man. It wasn't the cords that held Jesus, it was His love for you. They didn't need to bind Him, He was bound by cords that were stronger than the ropes that they used. He was bound by His love for you in providing redemption for you. 저들이 예수님을 결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수갑 같은 것으로 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포승 줄로 묶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어느 것도 그분을 붙잡아 두지는 못할 것이니 말이다. 그들이 그 무엇을 사용하여 그분을 묶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손쉽게 빠져 나오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 시간에 실제로 하나님은 천사들을 극도로 제재하고 계셨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천사들은 그 장소에 나타나 저들을 말끔히 쓸어버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사람들의 주께서 사람들에게 굴복을 하시다니 그것은 끔찍한 수치였다. 실상은, 오랏줄이 예수님을 잡아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사용하던 밧줄보다 더 강력한 줄에 의하여 그분은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에 의해 스스로 묶여서 우리를 구속하려 애쓰고 계셨던 것이다.

It was His love for me that nailed Him to the tree, to die in agony for all my sin. It was for my guilt and blame, the great Redeemer came. Willing to bear the shame of all my sin.

And it was His love that bound Him. He was committed now to the will of the Father and He was going willingly. He could have disappeared. He did on another occasion when prematurely they were going to try

and force Him to be king. He disappeared from their midst. Another time when they tried to take Him, He just disappeared. He could have disappeared now. But He was committed now to the Father's will to go to the cross and provide redemption for us. 그분을 속박하고 있던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분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셨으며 따라서 흔쾌히 그 길을 가셨던 것이다. 그분은 사라지실 수도 있었다. 이전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붙들고 강권하여 왕으로 모시려 하자 그분은 실제로 사라지신 적도 있다. 군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리셨던 것이다. 또 한번은 사람들이 그분을 체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때도 그분은 사라지시고 말았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They led him away to Annas first; for he was the father in law of Caiaphas, which was the high priest that same year (18:13).

Annas was the high priest from the year 6 to the year 15. He was a Sadducee, a materialist and he became an extremely wealthy man. He made his wealth by setting up little booths in what was known as the Gentile court of the temple. In these booths, he would sell certified sacrifices. If you brought say a couple of turtledoves to offer as a sacrifice, the sacrifices had to be without spot or blemish. And so the priest that would examine the turtledoves, they would look carefully, they would go over it inch by inch until they found some kind of a defect in it and then they would refuse it for sacrifice and they'd send you over to the booths of the high priest to buy certified sacrifices. Doves that had already been certified by the rabbis as acceptable.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는 사두개인이요 유물론자로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가 재물을 끌어 모은 내력은 이랬다.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다가 작은 상점을 차려두었다. 거기서 그는 품질이 인증된 제물을 팔았다고 한다. 만일 여러분이 산비둘기 두 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했다면, 그것은 흠이나 점이 없는 것이어야 하였다. 제사장이 나와서 제물로 바칠 비둘기를 검사할 것이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또 살피다가 마침내 제사장은 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비둘기를 제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인증된 제물을 파는 작은 상점으로 안내할 것이다. 대제사장이 운영하는 그 상점에서는 이미 랍비들로부터 무흠(無欠)하다고 인정된 제물들을 팔고 있었다.

The only problem was out on the streets you could buy a couple of doves for a quarter. But they were charging eighteen dollars for the two doves that were certified. And so the profit was going to Annas. It was his little merchandising scheme. That was the area that Jesus came into and He drove out those that were selling the sacrifices. Those that were changing the money. He drove them out and so Annas had it in for Jesus. The high priest had it in because Jesus had upset his businesses and so he was determined that he was going to get Him and get rid of Him. 문제는 저자에 나가면 여러분이 그런 비둘기 두 마리를 단돈 250원에 살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그런데도 성전 안에서는 그런 비둘기 두 마리를 인증 받았다는 구실로 시장가보다 72배나 더 받고 있었다. 그 모든 이득금은 안나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치졸한 상술이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쫓아내신 사람들은 바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돈을 환전해 주던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내어쫓으신 경력이 있었으므로 안나스가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만무하였다. 예수께서 자기 사업을 망쳐놓았으므로, 그 대제사장은 그분을 붙잡아다가 없애버려야 하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In about the year 15, Annas came into disfavor with the Roman government. And so he was deposed by the Roman government and he had five sons and each of his sons served as high priest for a period of time. But at that time, it was so corrupted they would use bribery and they would purchase the office. Much like in one period of the Catholic church when the office of the Pope was put up for bid and it was sold to the highest bidder. It was that kind of corruption that existed then and they would use bribery and all to gain the office of the high priest because it meant a lot of money because of the merchandising that was attached to it. 대략 15년 후가 되면 안나스는 로마 정부의 눈에 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로마 정부에 의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대제사장을 해먹었다. 당시는 너무도 사회가 타락한 때였으므로, 그들은 모두 뇌물을 주고 그 직위를 샀던 것이다. 한 때 카톨릭 교회 내에서 교황의 직위가 경매에 붙여져 가장 큰 금액을 거는 사람이 교황이 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와 흡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그런 부패가 존재했으므로, 사람들은 온갖 것을 다 내주고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였다. 대제사장이 되면 성전 제물을 파는 장사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d so over a period of time, all five of his sons had served as high priest but each of them came into disfavor. And so Caiaphas had married his daughter and he was now the Roman appointed high priest. However, the Jews did not really recognize Rome's appointments and they still recognized Annas as the high priest. So they brought Jesus first to Annas and John tells us of the trial there, it really wasn't very much before they sent Him over to Caiaphas. So they brought Him bound unto Annas first, he was the father in law of Caiaphas, who was the high priest. 그리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의 다섯 아들도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 모두가 또한 로마 정부의 눈 밖에 나게 되었다. 그러자 안나스는 자기 딸을 가야바와 결혼시켰는데, 이 때는 가야바가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가 임명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던 것이다. 요한이 본문에서 전하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는데,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넘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

Now Caiaphas was he, which gave counsel to the Jews, that it was expedient that one man should die for the people (18:14).

That was Caiaphas who was the appointed high priest and he was the one who earlier, as they were saying, What are we going to with this fellow? All of the people are listening to Him and all. He said, Don't you realize, don't you understand anything? It's necessary that one man should die that we might save the nation. 그런데 당시 현직에 있던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이 문제였다. 이전에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꼬?' 하고 물은 적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귀가 그에게 쏠려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너희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느냐? 한 사람이 죽고 그대신 우리 민족이 살게 되어야 할 것이니라.

And Simon Peter followed Jesus, and so did another disciple (18:15):

Who was that other disciple? We don't know. It was probably John but it has been suggested that maybe it was Nicodemus, who was a secret disciple of Jesus. It said that he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and surely Nicodemus, a wealthy man and a respected teacher, a Pharisee, would be known unto the high priest. Some have suggested that possibly it was Joseph of Arimathea. But most commentators accept that it was John. But how could John know the high priest and how could John have access? Where would the connection be? Because John was from Galilee.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잘 모른다. 요한일 수도 있지만, 비밀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던 니고데모라고 하기도 한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도 니고데모였을 것이다. 그는 부자였고, 존경 받는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가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요한이 어떻게 대제사장을 알게 되었으며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그리 할 수 있었을까? 요한이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John's father, Zebedee, was a very prosperous fishing magnate. In those days, fish was an important part of the diet. It was impossible, of course, to keep the fish fresh. The main source for fish was the sea of Galilee. It was teeming with fish as it is today. And so they would catch the fish in the Galilee and then they would salt them to preserve them and then they would ship them down to Jerusalem. So it is quite possible that John was a merchandiser working for his dad and that he would bring the fish to Jerusalem. It would appear that John had a home in Jerusalem and perhaps delivered fish to the high priest because only the wealthy could afford them and they were considered very much of a delicacy in those days. The wealthy enjoyed the fish and so it's possible that John had come into acquaintance with the high priest because of the business that he had in the selling of the fish. But at any rate, as I say, most believe that it was John. So

Simon Peter followed Jesus and so did another disciple.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매우 잘 나가던 어업계의 거물이었다. 그 당시 물고기는 중요한 식품이었다. 물론 물고기를 신선하게 그대로 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물고기의 주요 산지는 갈릴리 바다였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곳은 언제나 물고기가 풍부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 이를 소금에 절여 보관한 뒤 배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운반했다. 따라서 요한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일을 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물고기를 실어 날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한은 예루살렘 시내에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던 듯하며 대제사장의 집에다 물고기를 공급한 사람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물고기는 그 당시 매우 귀중한 진미로 간주되던 터라 부자들만이 그런 음식을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부자들만이 물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면, 물고기 판매 일을 도맡아 하던 요한이 대제사장과 안면을 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쨌든, 내가 앞서 말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또 다른 제자 하나’를 요한으로 보고 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고 또 다른 제자도 그리 하였다.

John really never did refer to himself much by name. But he referred to himself 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and here the other disciple. When he talks about running to the garden and he said that they both ran together but the other disciple outran Peter showing us that he was a faster runner, but he said he stayed outside and Peter went in; but he didn't name himself in the record. Just referred to himself as the other disciple or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요한은 자기 자신을 실명으로 거론한 적이 결코 없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든지 아니면 본문에서처럼 ‘다른 제자’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급한다. 자기가 동산으로 달려가던 일을 전할 때도, 그는 ‘두 사람 모두가 함께 달려갔으나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렀다’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자기가 더 빨리 달리던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그가 더 빨리 달리는 하였지만 ‘무덤에 도착한 후에는 밖에서 서 있었고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함으로써 끝내 자기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단지 자기를 ‘다른 제자’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언급할 뿐이다.

that disciple [the other one 다른 제자] was known to the high priest, and went in with Jesus into the palace of the high priest (18:15).

He followed right on in because he was known to them. 그는 예수님을 쫓아 곧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But Peter stood at the door outside. Then went out that other disciple, which was known unto the high priest, and spake unto her that kept the door, and he brought Peter in to the courtyard (18:16).

The fact that earlier in the record, he knew the name of the servant, Malchus, the servant of the high priest, the fact that he knew the name of the servant who Peter had whacked his ear off, indicates again a familiarity not only with the high priest but with the household,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So he brought Peter in and, 우리가 앞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귀를 쳐 떨어뜨린 종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 사실도 그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the damsel that kept the door unto Peter asked, Art thou also one of this man's disciples? And he said, I am not (18:17).

It would sound like she knew that John was. Are you also one of the disciples? And Peter denied saying, I am not. 이 여종은 요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듯이 보인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했다.

And the servants and officers stood there, who had made a fire of coals; for it was cold: and they warmed themselves: and Peter stood with them, and warmed himself. The high priest then asked Jesus of his disciples, and of his doctrine. Jesus answered him, I spoke openly to the world; I ever taught in the synagogue, and in the temple, whither the Jews always resort; and in secret I have said nothing (18:18-20).

There's no secret conspiracy. Everything I've said I've said openly. ‘비밀리에 진행된 음모는 전혀 없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말해 왔다.’

Why do you ask me? ask them that heard me, what I have said unto them: behold, they know what I said (18:21).

According to the law, they had sort of the Fifth Amendment kind of a clause in their law where a prisoner could not be asked a question that would bring about self-incrimination. So it was actually not legal for him to ask Jesus this question because it would require self-incrimination. Jesus is more or less pointing out the fact that that's not a legal question to ask Me. If you want to know the story, ask the witnesses. According to the law, the witnesses are supposed to come and bear witness of what they heard. The prisoner himself could not be forc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So Jesus was calling to him a point of order concerning the law. 저들이 가지고 있던 법 제5수정 관에 의하면, 죄수에게 스스로 죄를 입증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어긋나는 행위였다. 그것은 죄수 스스로 자기 죄를 입증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는 듯하다. 네가 정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 증인들에게나 질문을 하라. 저들의 법에 의하면, 증인들도 출석하여 각자 들은 바에 대해서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죄수 자신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다.

And when he had thus spoken, one of the officers which stood by struck Jesus with the palm of his hand, and he said, Do you answer the high priest so? Jesus answered him, If I have spoken evil, bear witness of the evil: but if well, why do you smite me (18:22,23)?

Here is a totally illegal process taking place and Jesus, who is just and who is righteous and who is concerned in true righteous judgment, is upset with this irregularity according to their own laws. And so He is standing up and challenging them. 여기서 전적으로 불법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공정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진실하고 정직한 심판에 관심을 갖고 계시던 예수님께서서 저들의 비리를 보고 분개하신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법에 비춰 보더라도 불법인 짓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히 항의하셨던 것이다.

Now Annas had sent him bound unto Caiaphas the high priest (18:24).

That was about all that was done there. They then sent Him over to Caiaphas. 거기서는 그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권을 가야바에게 이송하였다.

And Simon Peter stood and warmed himself. They said therefore unto him, Art not thou also one of his disciples? He denied it, and said, I am not. One of the servants of the high priest, being a kinsman or a relative of the man whose ear Peter had cut off, said, Did not I see you in the garden with him? Peter then denied again: and immediately the cock crew (18:25-27).

An interesting sidelight here. A possibility and that's all it is. Something to consider. They weren't really allowed to keep roosters in the city limits of Jerusalem. It's much like some of the ordinances that we have in our cities today where you can't keep roosters in your yard because they have a tendency of crowing in the morning and waking up neighbors, and so most cities have ordinances against keeping roosters. Such was the case in Jerusalem. But it is possible that someone had kept a rooster and that it was actually a rooster crowing. But there's another possibility and it's just interesting and I just throw it out and you can do the same. 여기서 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부가적으로 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 번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닭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마당에서 닭을 키울 수 없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울면 이웃 사람들이 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닭을 키울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만, 닭이 실제로 울 것을 보면 누군가 닭을 키우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신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oman had four watches during the night. First one began at nine o'clock, then twelve o'clock, and then three o'clock and then six o'clock. And at the changing of the watch, they sounded a trumpet. The sound of the trumpet at the three o'clock in the morning change of watch or change of guard was called the

cockcrow. And so it could be that it was the sound of the trumpet of the Romans to change the guards at three in the morning that Jesus had said, Before the cock crows, or before that three o'clock in the morning sound of the Roman trumpet, you will have denied Me three times. That is a possibility. Something to, interesting, sort of one of those little Chuck Missler kind of tidbits. Been around Chuck too long. 당시 로마 사람들은 밤을 4경으로 나누고 있었다. 제1경은 밤 11시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2경은 12시에, 3경은 3시에, 4경은 6시에 시작되었다. 경이 바뀔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오전 3시에 울리는 나팔 소리는 경이 바뀌는 시각임을 알리기도 했지만 파수가 바뀐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이 때의 나팔소리를 ‘닭우는 소리’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언급하신 얘기는 오전 3시 파수가 바뀔 때 로마인들이 불던 나팔 소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닭이 울기 전에’ 즉 ‘오전 3시 로마인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조그만 애들에게 줄 수 있는 경고로서, 재미있는 표현이다. ‘그 집에서 너무 오래 놀지 않도록 해라’고 경고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Then led they Jesus from Caiaphas unto the hall of judgment (18:28):

We are told by John nothing of the trial before Caiaphas. The other gospels tell us of the trial before Caiaphas, how that Jesus was brutally treated, how that He was mocked, how that they put a sack over His head and began to hit Him and say, Prophecy, who is it that hit You? And so the other gospels tell us of the trial before Caiaphas. And how finally, Caiaphas said, Are you then the Messiah, the Son of God? Jesus said, You said it. So he tore his clothes and said, What need we of further witnesses? We've heard Himself. And what do you say? They all say He's guilty of death. And so then they took Him over to the Roman court of Pilate in order that they might get the sentence of death. So John leaves out all of that trial before Caiaphas. 요한복음은 가야바 법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들은 가야바 앞에서 심문을 받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한다. 그분은 아주 천하게 취급을 받으셨으며 조롱을 당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의 머리에다 부대를 뒤집어 씌우고 나서는 그분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네 머리를 쳤는지 알아 맞춰 보라. 마침내 가야바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예수께서는 ‘네가 말 했느니라’고 응수하셨다. 그는 옷을 찢으며 이렇게 소리 질렀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단 말인가? 우리가 직접 저의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분을 빌라도의 로마 법정으로 송치하였다. 사형 선고를 받아내기 위함이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 뜰에서의 재판 장면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The whole purpose was to develop charges against Jesus that could be taken to the Roman government. The charges before the Roman government could not be charges on religious grounds. Rome didn't care. They had to be charges of some kind of insurrection of Jesus against Rome. And so there were false charges, they said that Jesus was advocating a tax revolt. He was teaching that they shouldn't give taxes to Caesar. That's wrong. They tried to trap Jesus on that issue. Remember they said, Is it lawful for us to give taxes to Caesar? And Jesus said, Show me a coin. And He said, Whose image is that? And they said, Caesar's. Well then give Caesar that which is Caesar's, give to God the things that are God's (Mark 12:14-17). 이 모든 과정은 로마 정부 앞으로 예수님을 송치하기 위하여 고발 거리를 찾기 위함이었다. 로마 정부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문제 이외의 혐의를 찾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가 관심을 쓰지 않았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거나 하는 등의 혐의를 잡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 죄를 덮어씌운다는 것이, 예수께서 납세 거부 운동을 옹호했다고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분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었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를 들어 예수님을 엮어 매려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는가?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동전 하나를 보여 달라. 이 화상의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황제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라 (막 12:14-17).

But now they are saying He was advocating not paying taxes and then they were saying that He was an

insurrectionist. He was going to rise up against Rome, that He was claiming to be the King of the Jews and was going to lead a revolt of the Jews against the Roman authority. So those were the charges that they decided to bring against Jesus when they brought Him to Pilate. So “they led Jesus from Caiaphas to the hall of judgment,” 그런데도 지금 저들은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주장하였다고 말하며 그분을 반란의 선동자로 몰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제가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일어서려고 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였으며, 유대인들을 이끌고 봉기하여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덮어씌우기로 작정하고 빌라도 앞으로 그분을 끌어왔을 때 내놓은 혐의 내용이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더라.”

and it was early; and they themselves did not go into the judgment hall, lest they should be defiled; but that they might eat the passover (18:28).

This is one of those cases where these guys are doing such a totally corrupt thing. You can't imagine anything more corrupt than this. They are conspiring to see a man put to death who has not done anything wrong. Wicked, vile, evil. And yet, they are careful not to go into the Roman court because this is passover day actually, and you're not to be where there is any leaven and it's possible that there was leaven within the court because the Romans didn't care about the bread not having leaven. And so religiously just keeping the letter of the law, and yet so totally corrupt. 이 일은 이 사람들이 저지른 것 중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였다. 여러분은 이보다 더 고약한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 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려 하고 있다. 사악하고 간교하고 극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저들은 로마 법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있다. 이 날은 실제로 유월절이었기 때문이다. 누룩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는 안 되는 날 말이다. 그런데 그 법정 안에는 누룩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누룩이 들어 있는 빵을 거침없이 먹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율법 조문을 잘 지키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It's interesting how corrupt religious people can sometimes be. How they are so careful in the little religious things. As Jesus said, “You strain at a gnat, but you swallow a camel” (Matthew 23:24). And this is so true of religious people. They are so interested in some of the little fine details of the religious traditions and yet they violate so completely real judgment and real honesty and integrity. 사람들이 때때로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구나” (마 23:24).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꼭 들어맞는 말씀이다. 그들은 종교적인 전통을 세밀하게 실천하기 위하여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은 실제적인 재판과 정직과 순결에서는 얼마나 철저히 범과(犯過) 하는지 모른다.

Pilate went out unto them, and said, What accusation do you bring against this man? They answered and said unto him, If he were not a malefactor, we would not have delivered him up unto thee (18:29,30).

There was no love between Pilate and the religious people. In fact, Pilate had been in trouble with them before. They had complained to Caesar concerning Pilate. When Pilate first became the governor over the area, the capital of the area for the Roman government was in Caesarea. But the governor oftentimes came to Jerusalem because that was sort of the center of the nation. And when he first came to Jerusalem with his soldiers, on the tops of the poles with the flags that they would carry the different legions, they had a little image of Caesar. And so as he came to Jerusalem, the religious leaders were out there and they said, We won't let you come into the city unless you take the image of Caesar off of the banners there. Pilate refused to do it. And so there was quite a confrontation. And finally, Pilate went back to Caesarea and they followed him back arguing all the way. They were about 200 of them and Pilate sort of threatened them. You don't like it, I'll kill you. And they all just held out their necks and they said, Go ahead, slice them. And he was so moved by that that he couldn't just kill innocent people like that so he gave in and they didn't, they took the little images off when they went to Jerusalem. That was one issue and it was reported to Caesar. 빌라도와 종교적인 사람들은 서로를 전혀 사랑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 빌라도는 이전부터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들은 황제에게 빌라도에 대해서 불평을 털어놓았다. 빌라도가 처음 그 지역의 총독이 되었을 때는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지역의 수도가 가이사랴에 있었다. 그렇지만 총독은 자주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예루살렘이 그 지역의 실제적인 수도였기 때문이다. 그가 군사들을 이끌고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각 군단을 상징하는 깃발의 끝에는 황제의 상이 작게 그려져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예루살렘에 다가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 깃발들을 보게 되었다. 저 깃발에 있는 황제의 상을 지우기 전에는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하여 상당한 시비가 일게 되었다. 결국 빌라도는 가이사라로 방향을 돌리게 되었는데, 그들은 내내 빌라도를 쫓아오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수는 다 해야 고작 200명 남짓이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을 약간 협박하였다. 너희가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너희를 죽여버리고 말겠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목을 길게 늘어뜨리며 어서 목을 치라고 대들었다. 그런 담대한 행위에 감동한 그는 차마 그렇게 무죄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는 양보하였으나 그들은 양보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황제 상을 제거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전말은 후에 황제에게 전해졌다.

There were a couple of other similar type of issues where Pilate came into disagreement and disfavor with the religious leaders and thus they were constantly reporting him to Caesar. That's why in the next chapter when he is arguing with them to let Jesus go, they said, If you let Him go, you're not Caesar's friend. Ultimately, Pilate was recalled upon the complaints of the religious leaders back to Rome and before he got back there, the Roman Caesar at the time died and so he disappeared from history. We really don't know what happened to Pilate after that. But there was bad blood between Pilate and the religious leaders. 그와 유사한 유형의 일들이 뒤 번 더 있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불화하며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그 자초지종을 황제에게 보고하곤 하였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은 빌라도와 논쟁하던 중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었던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은 황제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장에 가면 나온다. 결국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호소에 의하여 본국으로 소환되었는데, 그가 임지로 복귀하기 전에 당시의 황제가 붕어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어쨌든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 사이는 좋지가 않았다.

"He went out, and he said, What accusation are you making against this man?" And rather than answering his question, they just said, "If He were not a malefactor, we would not have delivered Him up to you."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대신 이런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 하였겠나이다."

And Pilate said unto them, Then you take him, and judge him according to your laws (18:31).

In other words, washing my hands.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You go ahead and judge Him according to your laws. 그는 손을 씻으며 말했다. '나는 이 사건과는 상관없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

The Jews therefore said unto him, It is not lawful for us to put any man to death (18:31):

They are revealing their hand. They are not bringing Jesus to be tried. They are bringing Jesus in order to get a sentence of death. They're not interested in a trial before Pilate. All they're wanting is a sentence of death against Jesus. The power of capital punishment has been taken from the Jews. Just not too long ago from this incident, they had lost the power of capital punishment. So they would, though, you remember Stephen, they stoned Stephen, and the manner of the Jews putting a person to death was by stoning. They could have stoned Jesus but they would have had to answer probably to Rome and so they didn't want stoning. They wanted a cruel, torturous death. They wanted to see Him suffer. They wanted to see Him crucified which is one of the most torturous means of putting a person to death. And they wanted to see Him suffer. So they wanted the sentence to come from Rome because the Roman form of execution was crucifixion. They said "it's not lawful for us to put a man to death," 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 시키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 언도가 내려지도록 하고자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지는 것이었다. 최고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로마인들이 가지고 가 버렸다. 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그들은 그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러분은 스테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임의대로 스테반에게 돌을 던져 그를 처형하고 말았다. 예수님께도 그들이 돌을 던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 로마의 법에 따라야 했을 것이고, 다음으로는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보다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을 원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식으로 알려진 십자가 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괴로워서 몸부림 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 처형은 십자가에 매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That the saying of Jesus might be fulfilled, which he spoke, signifying what death he should die (18:32).
Jesus said, “And I,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men unto Me. And this He said, signifying by what death He should die” (John 12:32,33). That is, being lifted up on a cross. They are wanting death by crucifixion.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요 12:33).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을 의미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매다는 사형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Then Pilate entered into the judgment hall (18:33),

He was outside talking to the Jews. Jesus was inside. 그는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안에 계셨다.

and he called Jesus, and said unto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esus answered him, You say this of yourself, or did others tell you of me (18:33,34)?

Is this a sincere question? Do you really want to know? Is it an honest question? Are you desiring to really know this? Or have others told you? Is this just something that you’ve heard? Is that what they are saying out there? ‘너는 지금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 네가 진실로 그 대답을 듣고 싶으냐? 네 솔직한 심정은 무엇이냐? 정말로 네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저 반복하는 것일 뿐이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말을 전해주더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냐?’

Pilate answered, Am I a Jew? Your own nation and the chief priests have delivered You unto me: what have You done (18:35)?

Pilate is interrogating Jesus, trying to find out just what’s going on here. What have You done? Why are they so upset? Why are they so angry? Why are they wanting to see You crucified? What have You done?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하여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고자 애썼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왜 저들이 저렇게 흥분하고 있는 것이냐? 왜 저들은 너를 십자가에 달고 싶어하는 것이냐?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러느냐?

Jesus answered,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f my kingdom were of this world, then would my servants fight, that I should not be delivered to the Jews: but now is my kingdom not from here (18:36).

Jesus is now affirming that He is a King, that He has a kingdom but it isn’t of this world. I’m not forming a conspiracy against Rome. I’m not trying to conscript men to rebel against the Roman authority. My kingdom is a spiritual kingdom. It’s not of this world. It isn’t a material kingdom that I’m going to establish at the present time. I’m going to establish a spiritual kingdom. It will be in the hearts of men, the transformed hearts of men. Lives who will be transformed in My kingdom. It’s not of this world.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그분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신다. 나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을 모의하고 있지 않다. 나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여 봉기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지 않다. 내 나라는 영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물질적인 게 아니다. 나는 영적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을 것이며, 변화된 마음 속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나의 왕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Pilate therefore said unto him, Are You then a king? Jesus answered, You said it.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s cause came I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ear witness unto the truth. Every one that is of the

truth heareth my voice (18:37).

Yes, I'm a King. This is why I was born.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upon his kingdom,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in judgment and in justice from henceforth even for ever" (Isaiah 9:6). Yes, I'm a King. "To this end I was born, for this cause I came into the world." For what cause? To establish a kingdom.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in the hearts and in the lives of those who will submit to His authority. 그렇다. 나는 왕이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 9:6). 그렇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는 말일까?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다. 사람들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다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So that you who have received Jesus Christ as your Lord, you have surrendered your life to Jesus. You said, I want You to take over my life. I want You to be the Lord of my life. You have entered the kingdom. You are a part of the kingdom of God. This spiritual kingdom that Jesus came to establish. My kingdom is not of the world. It's a spiritual kingdom. He rules in the hearts of those who have heard His voice and have responded to His call. It's so good. It's so wonderful to be a part of the kingdom of Jesus Christ.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며,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저는 당신께서 제 삶을 맡아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제 인생의 주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이 신령한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셨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왕국이다.' 그분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좌절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As the scripture says concerning Abraham that he considered himself just a stranger and a pilgrim here. He was "looking for the kingdom, a city which hath foundation, whose maker and builder is God" (Hebrews 11:10). "Our citizenship," Paul said, "is in heaven; from whence we look for our King,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Who when He comes He's going to change our vile bodies, that they might be fashioned like unto his own glorious image" (Philippians 3:20,21). Yes, I'm a King but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It's a spiritual kingdom that I'm going to establish in the hearts of people. Not by sword but by love. My kingdom will be established and the power of love will be stronger than the power of the sword and shall overcome the sword. 성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겼다. 그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히 11:10).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 3:20,21).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다 세우려고 하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그것은 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세워질 것이다. 나의 왕국은 칼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 따라서 칼을 정복하게 될 사랑의 힘에 의하여 세워지게 될 것이다.'

Pilate said unto him, What is truth (18:38)?

Jesus had mentioned, "I came to bear witness of the truth that every one that is of the truth hears my voice." What is truth? This, I think, was said with great cynicism because for years, centuries, the Greek philosophers had searched for truth. They had come up with many concepts of truth. But one by one their concepts were argued out by newer concepts. Until finally the age of philosophy was dying because they had despaired. They figured that truth did not exist. That there was no universal truth. That truth is a relative thing and it is individual and thus, what is true to you is true to you but not necessarily true to someone else. So they got into the existential philosophy where everybody experiences themselves what is true to them and

thus, truth is only relative to your background, who you are, where you were raised, the mores of the society in which you live and whatever. That is what establishes truth. There is no such thing as universal truth. And knowing that the philosophers had despaired to discover truth, Pilate said cynically, What is truth?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 하러 왔으므로,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나? 빌라도는 이 질문을 매우 냉소적인 어조로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회랍 철학자들은 진리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할 때마다 낡은 것들은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결국 철학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실망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보편적인 진리는 없다. 존재하는 것은 상대적인 진리 뿐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진리인 것은 당신에게는 진리일지 몰라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존적인 철학에 빠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진리는 각자의 배경에 따른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성장했는가, 나는 어떤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등에 따라 진리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철학자들이 진리 찾기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물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나?

Jesus had earlier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John 14:6). Here is Pilate asking the truth, What is truth? Jesus is truth. And over and over again we read through the gospel of John where Jesus said,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The word “verily” is truly. He came to bring us the truth of God. What is the truth of God? 예수님께서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14:6). 여기서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나? 고 묻고 있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서”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The truth of God is that God so loves you in spite of your rebellion. In spite of your foolishness. In spite of your carelessness, God so loves you that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take your sins and to die in your place, that if you will believe in Him, you might have eternal life. That’s truth. God’s truth. 하나님의 진리란 우리가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주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지고가게 하시며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이제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이다.

Pilate didn’t wait for an answer. He figured there was no answer.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해답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But he went out and he said to the Jews, I find in him no fault at all (18:38).

The man’s innocent. I don’t find any fault in Him.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

It is interesting how that God was protecting the witness of the innocence of Jesus. When Judas brought back the money, he said, I have betrayed innocent blood (Matthew 27:3,4). His witness, Jesus is innocent. When Pilate was in the process of judging Jesus, his wife sent a message to him and said,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just man (Matthew 27:19). The witness that Jesus was just. When the thieves were hanging beside Him on the cross, and the one thief was deriding Him, the other rebuked him and said, Don’t you fear God? We’re here because we deserve to be her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amiss (Luke 23:39-41). Further testimony to the innocence of Jesus. And now the testimony of Pilate. “I find no fault in Him.”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것을 증거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존해두고 계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가룟 유다는 돈을 도로 가져와서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마 27:3,4)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 했던 것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마 27:19) 하고 전언하였다. 이것 역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증거였다. 강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는 그분을 조롱하였으나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눅 23:41).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었다. 본문에서는 빌라도가 증언을 한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If justice is to be served, at that point he should have brought down the gavel and said, Case dismissed. That’s justice. But as is so often the case, justice is not served. Nothing new. Goes way back. 만일 공의를 집행하고자 했다면, 그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소는 각하되었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게 바로 공의인 것이다. 그러나 종종 그렇듯이, 여기서도 공의는 집행되지 못하였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리진 것은 하나도 없다.

But you have a custom, that I should release unto you one at the passover: will ye therefore that I release unto you the King of the Jews (18:39)?

He is saying it in a snide way, sort of rubbing it in. 그는 경멸적인 어조로 재차 짓궂게 물었다.

And they cried again, saying, Not this man, but Barabbas. Now Barabbas was a robber (18:40).

Shows you how low they have gotten. Here is Jesus, nothing amiss. Nothing wrong. The Bible said He went about doing good. Healing all manner of sicknesses and all. And yet when given a choice, Jesus or Barabbas, they said, Release unto us Barabbas. We wonder how can people be so hard? How can people be so foolish as to choose Barabbas over Jesus? A man who was known to be a criminal. Known to be a robber. A man who was dangerous to the public. Dangerous to be out on the streets. And yet they had rather take their chances with him than with Jesus. Release unto us Barabbas. 이 구절은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보여준다.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분은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릇된 일을 한 적도 없으시다. 성경은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고 말한다. 온갖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셨다고 한다. 그런데도 예수와 바라바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하니,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해질 수 있는지를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들은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람은 이름난 강도였는데도 말이다. 그는 잘 알려진 죄인이었다. 대중을 위협하던 존재였다. 그로 인하여 거리에 나다니기가 위험했던 그런 자였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그런 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바라바를 놓아 주시오.’

This business of King of the Jews, Pilate does get the last word. When Jesus is hanging on the cross, he has it written above the cross, King of the Jews. He had it put in three languages, Latin and Hebrew and Greek, so that they could all understand it. And that upset the high priest. Remember they came and said to him, Don’t put King of the Jews. Put, He said I’m King of the Jews. And Pilate, this thing was going on. It was bad blood here. He just said, What I’ve written I have written. He was anxious to get his licks in against them. He was being put in a very awkward position. There was a sense of justice in the Roman courts. A sense of justice, at least. He was being pressured to do something that he knew was wrong. 유대인의 왕이라는 직함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는 그 십자가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 그 말을 라틴어, 히브리어, 희랍어의 세 가지 언어로 적어 놓았는데, 이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표찰이 대제자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표를 달아 놓으라고 청한 일이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빌라도는 짜증이 났다. 그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고 대응했다. 그는 유대인들과 맞설 기회를 찾고 있었다. 자기가 매우 궁색한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법정에는 공의가 있어야 했다. 최소한 공의를 집행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그는 그릇된 일을 행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That’s always a difficult position to be in when some foolish person in the crowd is trying to push you into that which you know in your heart to be wrong. It always is difficult. They seem to always be there.

Those that are leading a person downward. Those who seem to have no interest in the gospel or in Jesus Christ or in their own destiny. They're sort of like the Pharisees that Jesus said, "You will not enter in, but you would hinder those who would enter in" (Matthew 23:13). They're always there. And they are now seeking His death. They are seeking to force Pilate to make a decision that in his heart he knows is wrong. And so he's upset with them. They've always been upset with him. And so it's a lot of pressure and all that's going on in these chapters, in this interchange between the Jews. 군중 속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섞여 있다가 여러분이 그릇된 것으로 알고 있는 어떤 일을 행하도록 밀어붙인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위치가 참으로 곤란해질 것이다. 그런 처지는 언제나 해결하기 어려운 법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운명에도 관심이 없는 듯이 보인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언급하신 바리새인들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마 23:13). 어딜 가나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가 옳지 않다고 느끼고 있는 결정을 그로 하여금 내리도록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났다. 하기가 그들은 언제나 그를 괴롭혀 왔다. 그러므로 이 몇몇 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은 모두 그에게 큰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It continues on into chapter nineteen. So as we go into chapter nineteen, we see this whole bantering back and forth as Pilate is determined to release Jesus and they are insisting on His death. So we'll follow that on up next week.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19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19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이 공방(攻防)의 전모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벌어지는 그 논쟁의 전모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Father, we thank You for the kingdom of God and the opportunities that we have of submitting ourselves unto the King. Bowing our knee before our Lord Jesus Christ. Confessing Him as Lord and King of our lives. Surrendering ourselves to follow Him and to live after the kingdom of God. Lord, establish Your reign within our hearts. We're here, Lord, ready to obey and to serve You. We pledge, Lord, our hearts, our lives, our allegiance to You and to Your kingdom. And Lord, we just pray that Your kingdom will soon come. That Your will will be done her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Lord, how we long for that day when the kingdoms of this world will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Messiah and He begins His reign forever and ever. Hasten that day, Lord, we wait for it in eager anticipation. And now, Lord, guide us as we submit our lives to You. Show us what You would have us to do. Lead us, Lord, in Your path. In Jesus' name, Amen.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임금님께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님과 왕으로 고백하고 모셔 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쳐 그분을 따르며 하나님의 왕국 법을 좇아 살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주여,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충성을 다 바쳐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기로 다짐하나이다. 주여, 우리는 당신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뤄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언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변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며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게 됩니까? 주여, 그 날이 신속히 임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리옵니다. 이제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당신께 굴복시킬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사 당신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